

난부 철기

시즈쿠이시초는 과거 난부번의 영지였습니다. 가마쿠라 시대(1185년~1333년)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난부 가문이 통치했으며, 17세기에는 양질의 철제품 제조 거점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.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은 '난부 철기'라고 알려지게 되었고, 지금도 수제 주전자와 냄비, 풍경 등의 장식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.

1659년, 교토의 명장인 고이즈미 니자에몬이 이곳에 철 주조 기술을 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문화와 산업이 진흥되길 바랐던 난부 가문이 니자에몬을 초청하여 차를 끓이는 솥을 만들게 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.

당시 일본의 전통 다도에 사용되었던 주전자에는 손잡이와 주둥이가 없어 대나무 국자로 뜨거운 물을 퍼내었습니다. 1750년경, 고이즈미 가문의 3대 당주가 보다 편리하게 물을 끓일 수 있도록 손잡이와 주둥이가 달린 작은 쇠 주전자를 고안했습니다. 이 난부 쇠 주전자는 점차 철 산업의 상징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. 다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난부 가문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철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역 산업은 번영했습니다.

난부 쇠 주전자와 기타 수제 철기는 시즈쿠이시초의 관광 물산 센터를 비롯해 시즈쿠이시초 내에 있는 공방과 가게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제품 중에는 이와테현의 또 다른 전통공예인 '조보지 옷칠'과 협업한 것도 있습니다. 조보지 옷칠은 이와테현 조보지에서 채취된 옷을 칠한 것입니다. 현재,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옷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지만, 조보지 옷은 몇 안 되는 일본산 옷으로 주로 국보 복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
시즈쿠이시초에 있는 공방 중 하나인 류 공방에서는 난부 철기의 주조 기술인 '난부 주조'와 조보지 옷이라는 두 가지 전통공예를 조합한 체험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 주얼리와 키홀더 등 오리지널 기념품을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.